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소비심리부진에도, 엔비디아 강세, 중국 부양 기대감 등으로 상승

미국 증시 리뷰

24일(화) 미국 증시는 고용 시장 불안감을 조성하는 CB 소비자신뢰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대규모 유동성 부양책 및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엔비디아 강세 등으로 상승(다우 +0.20%, S&P500 +0.25%, 나스닥 +0.56%)

중국인민은행(PBOC)은 조만간 은행 지급준비율(RRR)을 50bp 인하하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와 동시에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모두 인하할 것이라고 언급. 또한, 금융규제 기관들의 2주택 최소 계약금 비율을 하향하며 부동산 침체 개선방안을 내놓았고, 증권사, 기금,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유동성 공급 정책도 발표하며 중국 경제 활성화 가능성에 대두.

미국 컨퍼런스보드(CB)에서 발표한 9월 소비자신뢰지수는 98.7을 기록하며 컨센서스(104)와 전월치(105.6)를 모두 하회, 2021년 8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 낙폭 기록. 소득, 고용 시장에 대한 단기 전망을 반영하는 기대지수는 전월 86.3 → 81.7로 하락하였고, 현재 기업 및 고용시장 여건을 평가하는 현재 여건지수는 전월 134.6 → 124.3으로 급락. 집계측에 따르면, 소비자신뢰지수를 구성하는 5개 지표가 모두 악화되었으며, 특히 고용시장 여건에 대한 평가가 비관적으로 변한 점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미국의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의 7월 주택 가격지수는 전년대비 5.0%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다만 주택가격의 상승 속도는 전월치인(5.5%)를 하회하며 이전 대비 둔화되는 흐름을 보임. 한편, 지난 9월 FOMC에서 빅컷에 동의하지 않았던 마셀 보우먼 이사는 50bp 빅컷 인하가 인플레이션 안정에 대한 성급한 승리 선언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

주요 종목을 살펴보면, M7 종목 중 마이크로소프트(-1.0%), 메타(-0.19%)는 하락한 반면, 애플(+0.40%), 알파벳(+0.27%), 아마존 (+0.04%), 테슬라(+1.71%), 엔비디아(+3.97%)는 상승. 특히, 블랙웰 대량 생산 차수, 젠스황 CEO의 내부자 매도 완료 등의 소식에 힘입어 엔비디아가 3.9%대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 또한,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에 힘입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계 ADR 주식도 동반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미국의 9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심리지수(98.7 vs 컨센 103.9)가 쇼크를 기록했다는 점은 소비로 돌아가는 미국 경기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요인. 하지만 해당 지표가 소비보다 고용을 중심으로 집계한 지표이며, 미국 고용시장 둔화는 알려진 사실이자 연준의 9월 50bp 인하 근거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주식시장에서도 이미 침체 내러티브에 대한 내성이 강화된 상태이기에, 소비심리지수 포함 내구재주문 등 경기 동행지표 혹은 준 메이저급 지표들에 대한 주가 민감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 따라서, 금주 남은 기간 동안 미국의 준 메이저급 지표들이 예정되어 있으나, 이보다는 26일 마이크론 실적, 중국의 금리인하 이후 위안화 및 달러 인덱스 변화 등 여타 범주에서 발생한 이벤트가 증시 방향성에 영향을 줄 전망.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테슬라 강세,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인하에 따른 중국 증시 급등 등 대외 훈풍 속 기업 밸류업 지수 출시 기대감 등으로 상승 마감(코스피 +1.1%, 코스닥 +1.6%)

금일에는 미국 소비심리지표 부진에도 다우와 S&P500의 신고가 경신, 중 경기 부양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보일 전망. 업종 측면에서는 엔비디아(+4.0%) 등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강세(+1.3%)가 국내 반도체주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나, 마이크론 실적 대기심리가 이들의 주가 상단을 제한할 전망. 또 중국 관련 시클리컬 주들은 한동안 국내 증시에서 소외되었었기에, 이번 인민은행의 50bp 인하에 따른 중국 경기 진반등 기대감이 해당 업종들에 대한 빈 수급을 채우는 계기를 제공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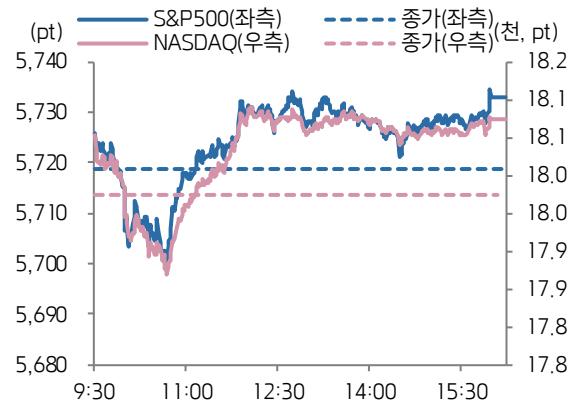
한편, 전일 거래소에서 출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놓고 시장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모습. 시장 대표성,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PBR), 자본효율성(ROE) 등 5단계 스크리닝을 적용해, IT, 산업재, 헬스케어, 금융 등 전산업이 고르게 분포되게 구성했다는 특징을 지니긴 했음. 그 가운데, 지수 내 100개 기업 중에 코스닥 기업이 33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밸류업 지수 관련 ETF 출시에 따른 수급의 온기가 중소형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성. 전일 장 마감 후 편입 기업 리스트가 공개된 만큼, 금일에는 편입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수급 수혜를 찾는 과정에 시장이 집중할 것으로 예상.

동시에 반도체 기업 중 지난 해 적자 기업이 편입되거나, 금융주 내 일부 대장주가 제외되거나, 지주, 통신주를 모두 제외됐다는 점이 일부 시장 참여자들의 의문점을 자아내고 있는 모습(세분화된 산업 분류 방식이 아닌 GICS 분류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 또 기존 코스피200 지수와 얼마나 차별화될 것인지, 실제 연기금들이 해당지수를 BM으로 사용할 것인지, ETF 출시 이후 ETF 투자자들 사이에서 어느정도 흥행할 것인지를 과제로 남아 있음.

하지만 이번 “코리아 벤처업 지수”는 올해초부터 큰 그림에서 추진해왔던 기업 벤처업 프로그램의 하위 카테고리이자 서브엔진이며, “주주환원”에 본질이 있다는 것임. 이는 연준, ECB, 인민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사이클 돌입으로 시중 금리의 레벨 다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주주환원 수익률 > 시중금리”的 구도로 전개됨에 따라, 주주환원 테마의 매력도를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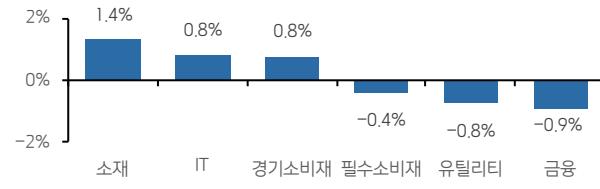
따라서, 코리아 벤처업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은 ETF 출시에 따른 단순 패시브 수급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수 편입, 미편입 여부와 무관하게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은행, 증권, 자동차 등 기존 벤처업 주력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적절.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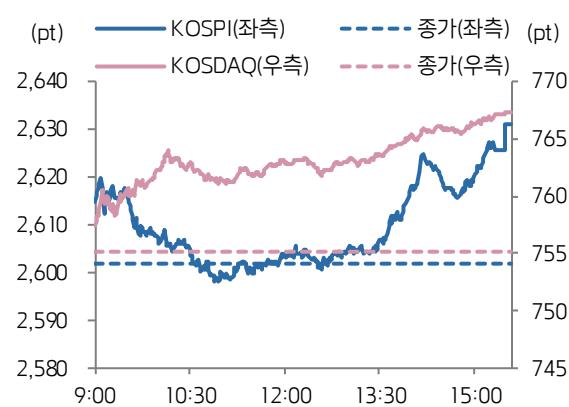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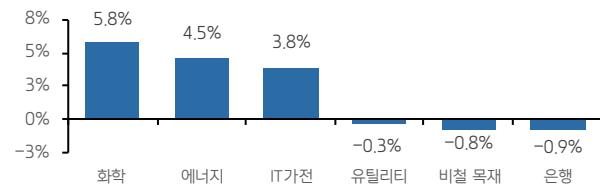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27.37	+0.4%	+18.54%	GM	48.07	+0.06%	+34.91%
마이크로소프트	429.17	-1%	+14.75%	일라이릴리	924.43	+0.64%	+59.36%
알파벳	162.29	+0.27%	+16.47%	월마트	80.67	+0.42%	+55%
메타	563.33	-0.19%	+59.63%	JP모건	211.59	+0.07%	+26.59%
아마존	193.96	+0.04%	+27.66%	엑손모빌	117.05	-0.26%	+20.08%
테슬라	254.27	+1.71%	+2.33%	세브론	147.45	-0.06%	+2.07%
엔비디아	120.87	+3.97%	+144.13%	제너럴일렉트릭	80.67	+0.4%	+55%
브로드컴	174.84	+1.1%	+58.32%	캐터필러	385.93	+3.98%	+32.15%
AMD	158.32	+1%	+7.4%	보잉	155.81	-0.31%	-40.22%
마이크론	94.00	+0.46%	+10.35%	넥스트에라	84.29	-0.6%	+41.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631.68	+1.14%	-0.89%	USD/KRW	1,330.40	-0.33%	+3.29%
코스피200	349.61	+1.11%	-2.34%	달러 지수	100.36	-0.49%	-0.96%
코스닥	767.35	+1.62%	-11.45%	EUR/USD	1.12	+0.62%	+1.28%
코스닥150	1,307.96	+2.18%	-6.14%	USD/CNH	7.01	-0.7%	-1.61%
S&P500	5,732.93	+0.25%	+20.19%	USD/JPY	143.23	-0.26%	+1.55%
NASDAQ	18,074.52	+0.56%	+20.41%	채권시장			
다우	42,208.22	+0.2%	+11.99%	국고채 3년	2.860	+0bp	-28.5bp
VIX	15.39	-3.15%	+23.61%	국고채 10년	3.032	+0.7bp	-14.3bp
러셀2000	2,223.99	+0.17%	+9.71%	미국 국채 2년	3.538	-4.9bp	-71.2bp
필라. 반도체	5,091.78	+1.31%	+21.94%	미국 국채 10년	3.728	-2.1bp	-15.1bp
다우 운송	16,150.50	+1.67%	+1.58%	미국 국채 30년	4.084	-0.8bp	+5.6bp
상해종합	2,863.13	+4.15%	-3.76%	독일 국채 10년	2.148	-0.8bp	+12.4bp
항셍 H	6,714.47	+5.09%	+16.4%	원자재 시장			
인도 SENSEX	84,914.04	-0.02%	+17.54%	WTI	71.56	+1.69%	+1.29%
유럽, ETFs				브렌트유	75.17	+1.72%	-2.43%
Eurostoxx50	4,940.72	+1.13%	+9.27%	금	2,677.00	+0.92%	+23.93%
MSCI 전세계 지수	840.05	+0.32%	+15.55%	은	32.11	+4.37%	+33.32%
MSCI DM 지수	3,688.33	+0.31%	+16.38%	구리	442.95	+3.28%	+13.85%
MSCI EM 지수	1,110.66	+0.38%	+8.49%	BDI	1,999.00	+1.11%	-4.54%
MSCI 한국 ETF	65.04	+2.12%	-0.75%	옥수수	411.75	-0.42%	-18.22%
디지털화폐				밀	578.00	-0.77%	-13.6%
비트코인	64,227.01	+1.44%	+51.09%	대두	1,042.25	+0.29%	-16.34%
이더리움	2,651.06	-0.41%	+16.16%	커피	267.80	+1.57%	+42.2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9월 24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기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